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6 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반복되는 일상을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거짓된 말, 상처를 주는 말, 판단하는 말, 오도하는 말이 온통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릇된 이득을 취하고 군림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말, 위로하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끄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 40:1,2 인도자
 - ▲ 교 독 문 47. 시편 105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함께
 - ▲ 성경봉독 전 11:1~6 I. 인도자
II. 권혁순 권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봉독자
다 함께
- 찬 양 I.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마중물 찬양대
II. 은혜 아니면 청파 찬양대

말씀	바람 그치기를 기다리지 마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루하루 힘을 내어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나서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바른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헛된 핑계를 대며 망설이고 몽그적거렸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함께 행복

제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을 집어삼켜 지배할 때 쓰는 기본 전략이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이다. 즉, 분열하게 해서 힘을 분산시켜 개개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이 시대 인간을 노예화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보자. 인구는 줄지만 집은 갈수록 부족하다. 사람들이 집을 나가서 흩어지기에 더 많은 집이 필요하고, 집을 지어도 지어도 부족하다. 건축업자는 더 많은 집이 필요한 핵가족과 1인 가구화를 고대한다. 4명이 한 집에 살 때는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가스레인지도, 청소기도 한 대면 됐지만 혼자씩 살면 모두 네 대씩 필요하다. 기업이 어느 쪽으로 유도할지는 자명하다. 혼자 살면 불안하니, 보험이나 연금을 들게 하기도 용이하다.

홀로 살면 생일날 '딩동'하고 알람을 울려주는 것도 인터넷 쇼핑물이나 보험회사다. 외로움과 허전함을 소비로 메우게 한다. 기업들은 인간의 무의식적 습관까지 코딩화해 구매케 한다. 카드 내역을 파악해 소비 패턴을 읽어 자기보다 자기를 훨씬 더 잘 아는 기업의 마케팅을 개인이 당해내긴 어렵다. 텔레비전과 영화, 게임, 인터넷의 정보와 재미거리는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이를 즐기는 동안 우리의 데이터는 날날이 자본가의 빅데이터에 헌납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와 마케팅이 신 같은 위력으로 다시 나를 조종한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이상 일거수일투족이 자본에 파악돼 그 노예로 살아가는 걸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하고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자본에 복무하는 매스미디어의 최대 해악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정해준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생을 스타들을 모방하며 보

내게 한다. 라캉의 말대로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게 부추겨 소비하는 노예와 로봇을 만들어버린다. 개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자본가들의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한 결과 세계 최고 갑부 8명에게 전 세계 하위 50퍼센트인 36억 명이 보유한 만큼의 재산을 안겨주었다.

...

마을과 공동체가 주는 최대 장점은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사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살이란 부익부 빈익빈과 지구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소비와 환경 파괴에 맞서는 혁명에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만난 마을과 공동체 사람들은 이웃과 어울리느라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텔레비전에 빠져 있을 틈이 없었다. 남한테 으스스할 필요도 없고 사치를 부추기는 마케팅에 동요되지 않으니 돈을 지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흔삶이 대세가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홀로 살아가는 게 불리하다는 것은 진화론자 다윈도 일찍이 간파했다. 다윈은 경쟁해서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의 적자생존을 언급한 바가 없다. 그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진화에 유리하다고 했다.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생존을 도모하는 데서 나아가 ‘함께 행복’해진다. 마을공동체살이의 이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고래가 뱃속에 8킬로그램의 폐비닐봉지를 담고 죽어 있다’는 뉴스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엾다’는 한마디로 스쳐보내지만, 공동체 사람들은 그날부터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일회용품 안 쓰기를 실행한다.

2019년 찬양대

1부 마중물 찬양대

대 장 : 박기영 지 휘 : 한선희 반 주 : 김수진 여선형

소프라노 : 김세진 김수진b김지해 김창숙 나지선 남선옥 남윤경 박해숙 신문희
안미숙 조경숙 최혜정 하상애 한상경

엘 토 : 김선지 오현우 이민희 이승지 전현선 한지원

테 너 : 김은종 박기영 송병찬 이순용

베 이 스 : 김진혁 이건호 이돈섭 장기환

2부 청파 찬양대

대 장 : 정종삼 지 휘 : 최윤선 반 주 : 이상미 서혜원

소프라노 : 강상연 김명희 박경선 사혜리 서해나 오현정 이경희 최형경 홍순복

메 조 : 구명자 박성희 송양진 이부곤 이현정

엘 토 : 김행자 박경원 유지은 이고임 이미경 이현죽 정옥영 최성애 최윤희
홍선희

테 너 : 김영호 김예준 박준민 심해성 안길상 이광섭 이치림 전영린 조관행
최형민 한상익

베 이 스 : 김근중 박규석 변상철 사은기 우윤석 이한림 장원호 정종삼 조항범

■ 현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혜린 고희은 곽새롬 곽정자 구재원 권혁순 박혜경b김도운 김명숙 김성순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정훈 이진영a김지은 김지현 김진규
 김진우 임미진 김태정 김혜라 문복순 박가연 박병구 박연주 박인혁 고숙이
 박재영 이현정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박지혜 박창운 허정운 백성래 백원선
 변재민 이소혜 서원금 서정순 송인선 신문희 안지민 오은영 유경주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윤정득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승지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재은 이정은a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a이현죽 임광호
 임찬양 임형욱 장현희 전찬익 이은자 정연희 정영례 정현숙 최 속 최옥자
 최 현 최형경 노진래 한상경 허정호 허호범 박성실 현진

감사현금

강혜린 권경혜 김반야 김성수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김주현 김주희 김호식
 최원영 박병구 김인순 박진주 박창운 허정운 박해숙 배삼순 손숙경 신영신
 안현호 윤선호 이건호a김보민 이광재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왕준 송상경
 이재은 이준희 이주희 이한림 김명희 임영선 임채진 이영희 전근우 정구봉
 조해린 채일석 한상익 정영선 무명4

녹색꿈현금

김영호 김일재 안현숙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찬양대 임명 : 오늘 예배 중에 1,2부 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모임은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재무교육 :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각 부서, 기관의 재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5. 임시구역회 : 임시구역회가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구역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역인사위원회 : 임시구역회 직후에 구역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7. 임원회 :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활동보고 및 계획서를 주중에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일(24일) 오후 3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9. 교사세미나 : 교회학교 교사세미나가 23일(토)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 10.모집 :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방송실 봉사자, 홈페이지 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신앙실천 :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자주 바라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출 15:19~21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박범희	추현영	김재흥

2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동준	강세기 정경례 이소애 김현주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고숙이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김희숙 배기용 안성호 박재영
다음주식당봉사	박해경 김민화 최희정 손숙경 서안나 국지연 최영민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51-5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46-50세)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